

제주항공 참사 100일 추모제... “참사 반복되지 않길”

희생자 안녕·안전사회 구축 기원
행사장 곳곳서 흐느끼는 소리 들려
유가족 “진상 규명 철저히 이뤄져야”
국회 참사 특위 특별법 발의 논의 중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앞두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0일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안녕과 안전사회 구축을 기원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묵념시간에는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다시 한번 참사의 슬픔이 끝나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유족 대표와 김 전남지사, 고 광주 행정부시장 등이 차례로 헌화를 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그날의 충격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을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지난 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떠나지 않고 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아프다. 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야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

지 않도록 남은 자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남도지사는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됐다”며 “지난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추모하고 남은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광완 광주 행정부시장은 “광주시는 한점의 의혹이 남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00일인 7일 오전에도 무안공항 1층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이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된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다. 이들 특별법안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에 넘겨져 논의된다. 특별법안은 여객기 사고 피해자 피해 지원과 생활·심리안정, 일상 회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희생자의 명예회복, 추모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광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등을 찾아 참사 100일 쯤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참사 100일째인 7일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통합한 특별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주말동안 광주·전남서 각종 화재 피해 잇따라

순천·곡성·광주서...70대 1명 숨져

주말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물적·인적 피해가 속출했다.

6일 순천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2분께 순천 상사면 용계리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69건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2명과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화재발생 50여분만에 오후 3시1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입야 0.1ha가량이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낮 12시11분께 곡성 죽곡면 남양리의 야산에서도 작업 중이던 굴착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0명과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9대를 투입해 오후 1시2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굴착기 1대가 전소됐으나, 당국이 빠르게 초기진화에 나서면서, 주변 임야로 화재가 번지지는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7시22분께 광주 서



지난 5일 오후 7시22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40여분만에 진화됐다. 독자 제공

구 농성동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88명과 장비 31대를 동원해 1시간40여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 다른 거주자 1명은

연기를 피해 스스로 대피했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3명도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관계당국은 이들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광양 얇은 바다에 대형고래 출현... 해경, 구조 나서

광양 연안의 저수심 해역에 대형 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48분께 광양 광양항 송도 연안에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길이 약 15m의 대형 고래를 발견했으며, 종류와 상태를 확인한 뒤 깊은 바다로 유도하는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항유고래로 추정되는 고래는 오후 1시 30분께 스스로 깊은 해역으로 이동했으며, 해경은 구조작업을 오후 4시께 마

무리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6시께 고래가 다시 얇은 해역으로 돌아오면서 해경은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현재 고래는 여전히 저수심 구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활동성도 떨어진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고래가 안전하게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2025학년도 초등영재교육원 개강식이 지난 5일 광주 윤리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마약 전력 숨긴 외국인 선수, KIA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KIA, 상습 대마 흡연 등 이유 들어
선수 A씨, 120만 달러 배상 요구
재판부 “계약 해지는 정당” 판단

과거 마약류 사용 전력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가 계약 해지에 반발해 국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프로야구 선수 A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

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KIA 구단과 기본 연봉 30만 달러 등의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구단은 이듬해 1월 A씨가 과거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사용했고 항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 복용 전력과 메디컬 체크 미통과 사실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KIA 구단 측은 A씨가 대마초를 8년간

매일 흡입했고, 금지약물 복용 사실도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메디컬 체크 역시 승인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초 상습 흡입 사실을 인정했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물 복용 사실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받은 건강 검진 결과에도 재검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계약 해지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KIA 구단 측의 계약 내용 언론 유출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철 기자

광주 초등영재교육원 거점학교 11곳 개강

4~6학년 과정 총 660명 입학

광주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5일 윤리초등학교 등 초등영재교육원 거점학교 11개교에서 2025학년도 초등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초등 영재교육 대상은 각 학교에서 교사관찰추천돼 영재성 검사를 거쳐 선발됐다. 4학년 과정 220명, 5학년 과정 220명, 6학년 과정 220명 등 총 660명이다.

영재교육 과정은 프로젝트 학습, 자율연구활동 및 성과발표회, 현장체험학습,

인성리더십활동 등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자신이 선택한 거점학교에서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임미옥 광주창의융합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